

쌍방향 디지털시집 시사회 개최

임실문인협회 · 오디오콘텐츠연구소, 디지털시 제작발표 · 디지털시집 감상 · 간담회

지난 30일 오후 5시 임실문화회 공연장에서 임실문인협회(회장 최기춘)와 오디오콘텐츠연구소(대표 엄미영)가 공동주최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국내 최초로 쌍방향 디지털시집(시집명: '섬진강연가') 시사회가 열렸다. 주인공은 섬진강가TV 대표인 황성신 시인이다. 황성신 시인은 현재 임실문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인은 섬진강가인 임실군 운암면 학안리에서 태어나 지금도 임실군 신평면 용안리 산여울 바로 강가의 외딴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오랫동안 섬진강가에 살면서 매일 섬진강을 관찰하고, 섬진강을 생각하면서 섬진강을 담은 시를 써왔다.

한편 디지털시집 제작 등 총괄 연출은 토크송아티스트 엄미영 대표(오디오콘텐츠연구소)가 맡았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원주 책박물관에서 진행된 '시와 음악'이라는 문화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엄미영씨는 오랫동안 독특한 음색의 시낭송가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어서 책박물관 특별강사로 초대되었고, 황성신 시인은 오래 전에 시낭송가인 엄미영씨의 감성적인 목소리에 매료되어, 자신의 시집을 듣고 엄미영씨를 만나러 갔다고 한다.

토크송아티스트인 엄미영씨는 황성신 시인 시를 보자, 바로 이 좋은 시를 음악과 감성적인 음성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했고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 쌍방향 디지털시집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 진행중 엄미영씨의 다리부상으로 작업이 3개월 정도 지체되기도 했다. 엄미영씨는 섬진강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강의 속살을 보기 위해 월면리, 학안리 등 섬진강을 여러 번 찾았다. 한

편 시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시인의 집을 직접 방문,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작업의 첫발을 내딛었다.

두 번째 작업은 디지털에 적합한 시를 고르는 일이었다. 좋은 시는 듣기에도 좋은 시이어야 하며, 이제 시는 타인을 힐링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가치에도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먼저 시인이 쓴 시 중 오디오와 디지털에 적합한 시 30여 편을 고르고, 오디오 테스트를 거쳐 최종 10편을 선정했다. 세 번째 작업은 가수가 새로운 노래를 오랫동안 연습하여 레코드 취입하듯이, 시에 가장 적합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시를 읽는 작업을 거듭했다. 네 번째 작업으로 시와 음성에 가장 적합한 톤과 음악을 선정하였고, 다섯 번째 작업으로 스튜디오에서 시를 녹음하고, 음악을 입혔다. 여섯 번째 작업으로 현장 사진 촬영 및 동영상작업을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는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시인에게 독자들이 소통 가능한 시인 전용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즉 인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튜브를 개설하는 일을 돕는 것으로 디지털시집의 출시가 마무리됐다. 음악감독은 최형범 작곡가, 영상감독은 이정미 사진작가가 맡았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시 제작발표, 디지털시집 감상 그리고 제작진 및 시인과의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쌍방향 디지털시집의 출간은 시를 활용한 콘텐츠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시집의 추진을 최초 제안한 전주대학교 김세곤 교수(전주대 LINC+사업단)에 의하면, 오늘 행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문화콘텐츠 영역중 '토크송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를

이해하기 쉽게 읽어주는 '시낭송'의 수준에 머물러있던 시를, 인간의 음성과 자연의 영상 그리고 첨단 미디어기술이 디지털을 만나 새로운 문화콘텐츠 영역인 '토크송 아트'가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직업의 탄생이다. 바로 시낭송가가 아니라 토크송아티스트라는 전문적인 직업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의 음성화의 영역은 시낭송으로 불려왔었다 그리고 시낭송 하는 사람을 시낭송가라 불렀다. 낭송을 시의 보조 수단으로 보았고, 시낭송가를 시인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시낭송가는 전문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오늘 드디어 노래에 있어서, '작사자와 가수'와 같은 새로운 영역, '시인과 토크송아티스트'라는 대등한 관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직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임실문인협회 최기춘 회장은 임실문화원(원장 김태진)과 함께 향후 지역의 문인들과 토크송 아티스트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인들의 디지털시집제작을 지원하고, 디지털시집 시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1호 토크송아티스트 엄미영씨에 따르면 앞으로 시는 노래에 좋은 시, 토크송에 좋은 시 그리고 일반 시로 분류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 관념적인 시보다는 듣기 좋고, 감동을 주는 시 위주로 디지털시집이 제작될 것이고, 향후 시문단은 물론 시관련 문화콘텐츠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성신 시인은 작업을 함께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로 "그야말로 머리로 읽는 시의 시대는 가고 있다. 이제는 듣고 보는 시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재단 내 성평등 위원회를 구성,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첫 성평등 위원회

성평등 인식 제고 · 문화기반 다질 수 있는 초석 마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재단 내 성평등 위원회를 구성,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평등 위원회는 총 7명으로 성평등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외부 5명,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아우르기 위해 재단 내부 분야별 2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재단에서 운영한 최근 3년 간의 각종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성비와 연령대 분석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재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성평등 문

화 확산 네트워크 전북포럼'을 시작으로 '전북 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포럼'을 공동 주관했고, 2021년 전북권 5개 문화재단과 전북대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로 구성된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를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에서 공동 추진하는 '성평등 예술비평학교'와 더불어 재단의 자체적인 '성평등 위원회'를 통해 재단의 성평등 문화 기반을 다지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혜경 팀장은 "재단 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성문화 환경이 전라북도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로 확산하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기획전시 '여행, 여기서 행복하자展'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은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올해 두 번째 기획전시인 '여행, 여기서 행복하자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완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은호동 작가가 참여한다. 이에 따르면 프로이드가 말한 행복의 3대 조건 사랑, 일, 놀이를 주제로 표현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지금 하는 일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놀이로 만들 줄 아는 여유를 지니고 살아가면 어디서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전시다.

전시에 참여하는 은호동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6회의 개인전과 80여 회의 단체전 및 초대전에 참여했다. 전국무궁화공모전 대상, 아시아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한국미협, 환경미협, 원목회, 가족사랑나눔회, 봄바람회, 편아트스토리 미술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재정 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



은호동 작가 연꽃이아기.

디러움 훌쩍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안타까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여행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으니 전시장을 찾아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음농악 가락 흥 · 화려함 선보여

정음시립농악단 농악연희 무료 공연 · 체험프로그램 진행

정음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정음사예술회관에서 정음시립농악단의 농악연희 무료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맞아 진행된 이번 공연은 정음농악과 전통연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에서는 정음농악 시연과 함께 호기심 자극 사자 탈춤, 정음농악 가락의 흥과 화려함까지 더해진 사물판굿, 채상소고 놀이 등을 선보

였다.

마지막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슬아슬 버나(찹시)돌리기 체험을 진행해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는 고부초등학교와 희망지역아동센터, 드림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개 단체씩 3회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



정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을 비롯한 8개 단체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웃음과 교훈을 주는 아동극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김대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